

“회선재판매 협상추이 감안 신중히 검토” WTO기본통신협상 설명회 Q&A

WTO기본통신협상 설명회가 지난 8월 17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 이종순 정보통신협력국장을 비롯, 주현정 부이사관, 강문석 서기관, 그리고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최병일 연구원이 참석해 그간의 협상진행 상황과 외국의 요구, 우리의 대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일반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을 했다. 다음은 그 질의응답의 주요내용이다.

- Q : 규제기관의 독립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계획은?
A : '95. 7. 4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연계, 통신관련법령개정시 검토될 것입니다.
- Q : 음성 공·전·공 접속 허용요구와 관련 시내외 요금격차 해소 및 접속부가료 등의 도입계획은?
A : 요금구조의 원가근접은 정부가 계속 추진해온 과제로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Q : 현 상호접속기준(안)은 국내경쟁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경쟁촉진을 위한 현재의 신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외개방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 공정한 상호접속제도의 마련은 국내통신시장 경쟁촉진에 따라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 Q : WTO 정부대표단 구성 및 선정기준은?
A : 정보통신부 담당자를 주축으로 관계부처가 참석하고 있으며 KISDI 전문연구원이 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Q : 회선재판매 허용계획은?
A : NGBT 협상추이를 보아가면서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
- Q : 사업자수 제한 철폐방침 및 외국인 지분 완화계획은?
A : 현행 RFP 방식에서 수시신청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나 신청만 하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분제한 완화에 대하여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 Q : 대외개방에 앞서 회계분리기준에 의한 정부의 보완방침은?
A : 회계분리규정은 정부에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나 한국통신에서도 자발적인 분리노력이 필요합니다.
- Q : 최초 양허안을 오는 8차 협상회의에 제출할 것인지와 양허안의 공개 용의는?
A : 양허안에 대한 기본방향은 발효할 것이나 협상전략상 원안의 공개는 곤란합니다.
- Q :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불구하고 올해 새로운 통신사업자 선정시 현행 법의 기간통신사업자의 타기간사업자 지분소유 금지조항은 기존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아닌지?
A : 올해 허가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입니다.
- Q : 대외개방에 맞추어 보편적 서비스 기금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닌가?
A :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WTO NGBT에서도 계속 논의중이며, 경쟁도입으로 보편적서비스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화 될 것입니다.
- Q : 재벌 등 대기업, 이와 제휴한 외국기업, 한전과 같은 자가 통신설비 보유자 등이 무분별하게 통신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한국의 통신사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A : 자가 통신설비를 보유한 공기업의 통신사업 참여의 경우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허용한 예가 있습니다.
- Q : 경쟁사업자의 가입자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A : NGBT에서도 정보공개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된 것이 없으며 현재 협의중에 있으나, 공정경쟁 차원에서 요금정산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은 필요할 것입니다. ●